

2016 Yulchon · Onyul Pro Bono Report

2016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인사말 04

은을 소개

연혁 08
비전과 미션 10
조직 10

을촌-은을 활동

공익법제 개선 12
기초법 연구 및 학술 지원 14
성년후견제도 지원 16
글로벌 사회공헌 20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24
청소년 멘토링 26
봉사 및 후원 28
2016 공익활동지표 32
협력기관 및 단체 34
장애인 고용 실천 35

을촌-은을 언론보도

언론보도 38
기부액/ 기부시간 44
은을 회원 명단 44



이사장 인사말

법무법인(유) 율촌 출범 16년만에 설립된 공익사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의 철학과 비전을 공익활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합니다. 온율은 율촌의 혁신, 헌신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촌과 온율은 공익활동을 통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이라는 목표 아래,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후견업무의 본격적인 시행, 후견법제 및 실무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율촌-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및 법이론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분야의 사각지대에 대한 공헌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로펌 및 법률가로서의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를 발전, 확대 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6년은 제가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해로, 공익활동에 전념해오신 박은수, 임희동 변호사에 더하여 배광열, 전규해 두 분 변호사가 온율의 공익전담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이전하여 독립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직원을 두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2016년은 국내 로펌들이 서로 협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로펌공익네트워크”를 출범, 활동을 시작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온율은 그 설립을 주창한 일원으로서 앞으로 능동적 자세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율촌과 온율은 고유 목적 활동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 및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외의 공조를 통하여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율촌, 온율의 공익활동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소순무



공익위원장 인사말

율촌은 창립 시부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로펌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온을이 설립되기 전부터 율촌은 법률가로서의 공익활동의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에 우리의 재능과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율촌과 온을은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단순히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이용하여 율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그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그동안 쌓아온 율촌의 사회공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통한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익활동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2016년 한 해 동안의 저희들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깊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공익위원장 **윤 세 리**

온율 소개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온율(溫律)’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4년 3월 3일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의 이름입니다. 율촌과 온율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LSR) 수행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가치를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하여

지속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온율은 율촌의 기본 철학인 헌신, 혁신과 율촌 소속 법률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 연구 및 개선 활동, 국제사회와의 협력, 법 이해를 위한 법률문화콘텐츠 개발,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이와 함께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istory

| | | | | | |
|--|--|----------------------------|-----------------------------|--|---|
| | 2014. 3. 3. | 2014. 3. 6. | 2014. 3. 20. | 2014. | 2014. 6. 23. |
| | 사단법인 온율 설립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한국법 센터 설립 후원 | 한국 장애인 재단과 법률지원 사업 협약 체결 | 세계자연보호기금 (Word Wide Fund For Nature) 한국법인 설립 법률 지원 | 미얀마 장애인 복지기본법 초안 작성을 위한 양곤대학교 법학과와 협약 체결 |
| 2015. 3. 11. | 2015. 3. 5. | 2014. 11. 24. | 2014. 9. | 2014. 8. 27. | 2014. 7. 1. |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Yulchon-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 (율촌-서울대 신흥지역 연구센터) 공동 설립 |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 공익활동 학술논문 현상공모 | 성년후견제도와 법률가의 역할 워크숍 개최 |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 개최 |
| 2015. 4. 27. | 2015. 9. 14. | 2015. 9. 22. | 2015. 9. 23. | 2016. | 2016. 5. 27. |
| 생활법률지원센터 개소 |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2015년도 연구보고서(Country Report) 발표회 |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설립 |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 제1차 특강 세미나 개최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정책 과정 장학생 선발 및 학비 지원 |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2016년도 연구보고서 (Country Report) 발표회 |
| | 2016. 11. 28. | 2016. 9. 14. ~ 9. 17 | 2016. 7. 28. | 2016. 7. 1. | 2016. 7. |
| | 율촌-온율 공익활동 아이디어 공모 | 9. 17. 독일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참석 |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 제2차 특강세미나 개최 |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개최 | 법인후견인으로서 성년후견사건 수행 시작 |

온율의 비전과 미션

Vision



‘따뜻한 법’ 으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온율은 법률가들의 전문 법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법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Mission



- 공익단체, 법률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연구 및 개선
-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정착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
- 청소년 멘토링 및 후원, 봉사활동을 통한 소통과 나눔

사단법인 온율 조직

총 회원 수

법무법인 율촌 소속 구성원



분야별 조직 구성

| | |
|----|------------|
| 온율 | 공익법제지원팀 |
| | 성년후견지원팀 |
| | 글로벌사회공헌지원팀 |
| | 교육지원팀 |
| | 법률문화콘텐츠팀 |
| | 범죄피해지원팀 |
| | 봉사활동지원팀 |
| | 온율 운영지원팀 |

이사회 | 이사장 - 소순무

이사 - 강석훈, 강희철, 박은수, 우창록, 윤세리, 장영기

사무국 | 박은수, 배광열, 전규해 변호사, 황지경 차장



2016 Yulchon Onyul Pro Bono Report

이

기

도

공익법제 개선



공익활동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지원

현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 단체에 대한 기부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제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익활동 및 이익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환경은 미흡합니다. 특히 공익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부금 모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익단체 활동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부자에게도 큰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촌과 온율은 논문 공모,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으로 공익활동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중 기부관련 법제에 대해 연구, 개선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와 교류하여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제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활동내역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온율은 '공익신탁법' 제정 등을 연구해 온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종기 교수에게 '모금전문가 및 기업에 의한 모금활동의 활성화와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번 연구용역에서 이종기 교수는 모금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법제들을 분석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모금전문가(스스로 모금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상업적참가자(다른 영리사업을 주로 하면서 수익금 일부의 기부광고를 하는 자)의 개념을 도입, 보다 쉬운 모금활동이 가능한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기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정보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합 관할하는 통합공시기관의 설립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기부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다른 로펌과의 교류(로펌공익네트워크)를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

온율은 로펌공익네트워크에 참여하여 2016.11.7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한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지원하였습니다. 온율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수 로펌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윤촌과 온율은 2016. 11. 9. 국제공익법단체인 PILnet의 Seth Gurgel 변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해외 로펌에서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윤촌과 온율도 다양한 로펌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보노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초법 연구 및 학술 지원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설립

율촌은 2015년 9월 22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한국의 현실과 문화에 초점을 맞춰 기초법 분야를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철학(인식론, 의미론, 윤리학 등), 역사, 정치학(정치철학, 정치제도론 등), 인류학, 사회학 등 다른 학문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해외 법이론 분야 연구기관들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를 시도할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한국의 법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자료로서 외국 법이론 연구, 법이론 고전에 해당하는 저작물들과 새롭게 각광받는 저작물들을 꾸준히 번역하면서 해외 법이론 연구기관과 교류할 예정입니다.



활동내역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 국제학술활동지원
2016. 1. 11~ 1. 25 프랑스 낭트 학술원 개최 "Theological Foundations of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16th~ 17th Centuries", 홍기원 박사



- 국내학술행사지원
2016. 12. 10. 한국법철학 추계학술대회 "현대 자연법론의 동향과 새로운 쟁점"



- 콜로키움 개최
- 2016. 11. 12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 2016. 12. 15 박은정, "Lon Fuller의 법철학: <법의 도덕성>"

- 기초법 연구실 공부 모임 지원
로마법 강독회(최병조 교수), 한국법제사강독회(정공식 교수), 법철학교실(김도균 교수)

성년후견제도 지원



의사결정능력장애인 보호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민법 개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지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이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 일상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촌과 온을은 성년후견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 지적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연구하고 정착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성년후견 법제 개선, 연구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성년후견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연구, 학술행사 참여,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의 교류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 2016. 7. 1.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개최
- 2016. 9. 14. - 9. 17. 독일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참석
- 서울가정법원 법인후견인 간담회 참여
- 후견법인, 후견인, 학계 간 교류 추진
- 후견제도, 후견대체제도(후견지원신탁, 장애인신탁 등) 연구

법률신문 2016. 10. 27.

허진용 변호사 독일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참여기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본 대회의 폐막과 동시에 2018년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의 개최를 유치한 것입니다. 본 대회는 참가국들이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대회였습니다. 제1회 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10월경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고 이 때 국제연합장애인 권리 협약의 기본 이념에 발맞추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과 역할, 그 이용을 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한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위 선언문은 개최지를 본떠 요코하마 선언

활동내역

(The Yokohama Declaration)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개최될 제5회 성년후견대회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협력 아래 선언(New Declaration)이 채택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공공후견 및 권익옹호 지원 활동

우리나라에는 약 21만명의 지적, 자폐성 장애를 지닌 발달장애인(2015년 기준), 약 68만명의 치매환자가 있습니다(2016년 기준).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재산 관리에 관한 인식 및 판단의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생활의 곤란을 겪을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노동을 착취당하거나 학대를 겪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온을은 가족, 친척, 이웃들로부터 신체적·경제적·정서적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인, 치매환자의 피해회복, 재발방지,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강의안 제작, 후견인 양성 교육, 공공후견 사례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 학대피해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권익옹호 활동
- 지적협회 업무협약 체결 : 공공후견사업(후견교육 지원, 공공후견사례 자문 등) 지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의해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지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성년후견제도 정착

온을은 실제 10여건의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성년후견제도 강의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교육 시행: 법무부-동대문구 법률콘서트, 서울서초구 치매지원센터
- 법인후견인 활동: 2016. 7.부터 총 10건의 성년후견사건에서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되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후견 업무 수행

인터뷰 - 1 피후견인 가족 인터뷰

외동딸인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 어머니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아버지 또한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부모님의 생사와 신변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믿었던 친지들의 배신과 음모, 지인의 사기극까지 기막힌 상황을 역울하게 지켜봐야했고, 그들로 인해 부모님은 경제적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사단법인 온을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이 부모님의 후견인이라는 것이 낯설기도 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후견인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국에 귀국한 2016. 11. 온을 담당변호사를 부모님과 함께 처음 만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가 무릎을 꿇은 듯 낮은 자세로 아버지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며, 온을이라면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여 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3여 년간 투병하시던 어머니는 얼마 전 하늘나라로 편히 가셨고, 온을의 도움아래 장례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아버지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지만, 온을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심으로써 멀리 있는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선구자 격인 온을에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후견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일조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항상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온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 2 맹주한 변호사

저는 후견절차개시신청 재판의 당사자 사이의 재판기록을 보았을 때, 피후견인의 재산 때문에 계속 접촉하려고 하는 친족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후견인 제도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임을 절감하였습니다.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한 이러한 후견인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손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이고, 한편 믿을만한 사람이 점차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온을이 소임을 잘 맡아 감당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해외 교류

율촌과 온윤은 종래 LSR(로펌의 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해오던 공익활동을 율촌의 전문성을 활용한 CSV(공유가치 창출) 활동 차원으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신흥지역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율촌과 온윤은 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 확대,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에 율촌 신흥지역 연구센터(Yulchon - 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 이하 '신흥지역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율촌과 온윤은 CSV의 영역 확장을 목표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활동내역

율촌-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 활동

- 2016. 5. 27. "제 2기 Country Report 발표회" 개최

율촌과 온윤은 2015년부터 매년 1회 신흥지역연구센터 소속 학생들과 함께 각 국가 법제도를 포함 정치, 경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Country Report)를 작성하고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작업은 신흥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법제도를 파악하고, 원조기구 및 국내 기업 등이 해당 지역에 진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상생의 수단이 됩니다.



| 대상 국가 | 제 2기 Country Report 발표주제 | 발표자 / 율촌 담당자 |
|--------|--|--|
| 인도네시아 | Labor Law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Indonesia | Mr. Macrae, Kieran Mr. Amri, Andhika / 백민우 쉼 |
| 미얀마 | Migration, Population, Religions, FDI and Business opportunity in Myanma | Ms. Sung, Yoonjung Ms. Lynn Thida / 강수구 쉼 |
| 우즈베키스탄 | The Prospect of Korean Investment into Uzbekistan | Mr. Nam, Sungtae Mr. Abdusalamov, Farruh / 이화준 쉼 |
| 파키스탄 | Pakistan's Growth: Rol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Agriculture | Ms. Kang, Youjin Mr. Wiqar, Ahmad / 정동수 고문 |
| 에콰도르 | Implications on Ecuador's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FDI | Ms. Kim, Jiye Ms. Tapia, Ivonne / 양호인 쉼 |
| 케냐 | Kenya Vision 2030: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 Ms. Yoon, Soojung Mr. Mambo, Ali / 정동수 고문 |

활동내역

이와 같이 신흥지역연구센터는 신흥지역 출신 유학생에 대한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서, 신흥지역 유학생과 울촌의 지역 전문가가 함께 주제를 정하여 연구하는 과정을 만들어 서로 교류하며 우리의 법제도와 신흥지역 법제도를 비교, 우리 법제도의 장점을 각 신흥지역의 현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제학 관련 강연 및 세미나 개최 제 2차 특강 세미나 개최

2016. 7. 28. 울촌-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는 Gül Berna Özcan 박사를 발제자로 모시고 “A Critique of International Aid Practices: Central Asia in Transition” 라는 주제로 제2차 특강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 7. 28. Gül Berna Özcan 박사의 “A Critique of International Aid Practices: Central Asia in Transition” 발표

활동내역

개발협력정책 과정(DCPP) 학생 학비 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으로 개설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개발협력정책프로그램(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DCPP”)을 이수하는 외국 유학생(만줄라 찬드라팔라, Manjula Chandrapala)을 선발, 석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지원합니다. DCPP 참여 대상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공무원으로 DCPP를 통해 소속 국가의 경제발전 정책 및 이에 필요한 각종 제도 수립 방식을 연구하고 귀국 후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합니다.



울촌과 온을이 후원하고 있는 만줄라 찬드라팔라(Manjula Chandrapala)는 현재 스리랑카 국가 정책과 경제부에 속한 국가계획부 공무원으로서, 개발협력정책 과정 (DCPP)을 통하여 개발 경제학 및 개발 협력 정책 분야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정책 개발자로서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그 경험을 연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Harvard Law School Disability Project 후원

울촌-온을은 하버드 William P. Alford 교수가 추진하는 ‘Harvard Law School Disability Project’ 에 대하여 \$20,000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울촌-온을은 이 기부금을 통하여 장애 법과 정책에 대하여 정부 및 시민 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학자들이 장애에 관한 교과 과정 및 연구개발을 하는 것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소외계층 지원



법치주의에 기반한 소통

울촌-온율은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준 법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방면에 관한 법률교육을 통하여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전역예정군인, 이주외국인 등 교육 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파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률가들은 교육 대상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육 대상은 법치주의 및 변호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활동내역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운영

울촌 및 온율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법률상담의 전문가 임희동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익법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상담과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역예정간부 법률 교육 지원

군 전역 예정자들은 오랜 기간 군대조직 내에서 생활해왔기에 전역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울촌-온율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하여 전역예정군인이 전역 후 쉽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합니다.

- 사기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및 법률교육
- 법적 피해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
- 국방전직연구원에 대한 법률 자문

법률문화콘텐츠 개발

울촌과 온율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민주주의 교육의 요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인, 아동,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반인 대상 법률교육 자료 제작
-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하는 시민 법률콘서트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

울촌-온율은 2015년부터 세계범죄피해자지원협회에 참여하여 국제 연대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주외국인 법률 지원

2015년 10월부터 KB국민은행과 협업하여 안산지역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통역을 포함한 KB국민은행의 능력과 네트워크와 울촌-온율의 법률 지식을 결합하여 최적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일회적인 법률 상담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외국인들의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이주외국인들을 위한 생활법률가이드북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주외국인 법률 상담(KB은행 안산지점 방문)
-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가이드 북 발간

청소년 멘토링



희망의 씨앗 뿌리기

울촌은 씨드스쿨의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에 공감하여, 연간 1억원 상당의 금액을 후원합니다. 또한, 씨드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자들을 직접 만나,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대학생 봉사자뿐 아니라 씨드스쿨 참여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2017년에도 울촌-온을은 따뜻한 법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나눔의 이념 하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청소년들이 주변환경의 제약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Seed School '씨드스쿨(Seed School)'은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취약 계층 청소년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멘토들의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멘토링 학교입니다. 씨드스쿨은 현재 덕양중학교, 모현중학교, 북서울중학교, 경수중학교, 경서중학교 등에서 운영 중이며, 성공적인 공익 교육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씨드스쿨 프로그램 참여 및 행사 후원

울촌과 온을은 '변호사의 역할 소개' 등 씨드스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드스쿨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씨드스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사업' 및 씨드스쿨 7주년을 맞이하여 멘토링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개최된 '씨드스쿨 수기공모전'을 후원하였습니다.



씨드스쿨 배움이 있는 식사(상/하반기 각 1회) 참여

울촌 가족들은 2016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배움이 있는 식사' 행사를 통하여 대학생 봉사자들을 직접 만나 각 봉사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 봉사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감사의 밤 행사 참여

울촌과 온을은 2017.1.25 서울 성락성결교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개최한 '2016 감사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Seed와 T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 및 후원

사랑의 중고 pc 기증

2016. 6. 30.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퇴소아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에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30 여대의 전산장비를 기증하였습니다. 울촌-온율은 최근 3년 동안 데스크톱 300대, 모니터 150대, 노트북 30대 등을 정보취약계층에 기증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설립 관련 자문

2016. 9. 울촌의 정준우 변호사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중앙회)와 대전협회(지방협회) 간의 분리독립에 관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독립법인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의 정관 및 분리독립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제 12회 시각 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

2016. 9. 3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과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2016 시각 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 및 지원하였습니다. 울촌-온율이 지원한 본 마라톤 대회 참가비는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되어 시각장애인 지원 기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The 4th 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Service Day 참여

2016. 11. 4. 정동수 변호사와 John Dryden 변호사는 "제 4회 AMCHAM Service Day - 사랑의 연탄배달"에 참여하였으며, 울촌-온율은 위 행사에 쓰인 연탄 1000장에 대하여 후원하였습니다.



예가원 교육봉사활동

2016. 12. 3. 울촌과 온율의 변호사들은 지적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에 방문하여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봉사 및 후원

미안마 장애아동 돕기 위한 바자회

2016. 12. 21. 섬유센터빌딩 3층 카페 어울에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기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울촌·온율이 설립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의 교수 및 유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모인 기부금과 판매 수익은 미안마 장애인 아동 보호 시설인 Eden Center for Disabled Children에 기부하였습니다.



신우회의 급식지원 봉사

울촌 내 기독교 신자 모임인 신우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점심급식 지원 봉사를 합니다.

공익활동 참여 및 활동을 위한 제1회 울촌·온율 공익활동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다양한 공익활동 개발과 공익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울촌인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울촌인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모된 아이디어들은 온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울촌인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촌 봉사모임 밀알

울촌 봉사모임 밀알은 2001년 1월에 구성된 봉사단체로, 현재 변호사 및 전문가 40명, 직원 13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밀알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 및 일손을 제공하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공동체 ‘은혜동산’에 대해 매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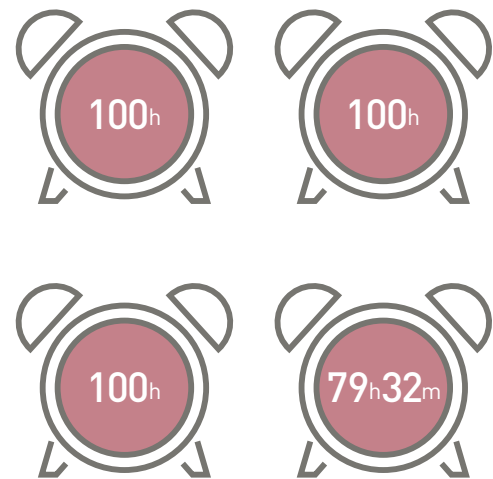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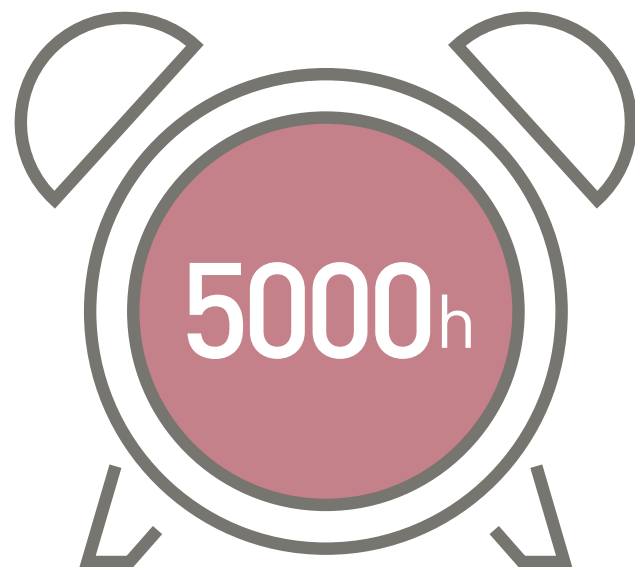
2016 공익활동시간

대상 : 한국변호사 245명

율촌과 온율은 공익활동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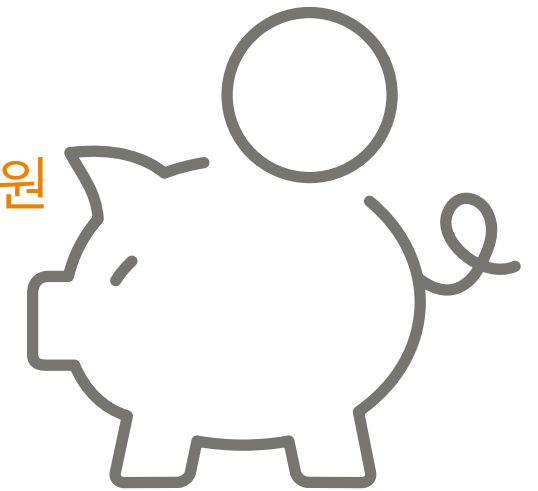
총 공익활동 시간

5379시간 3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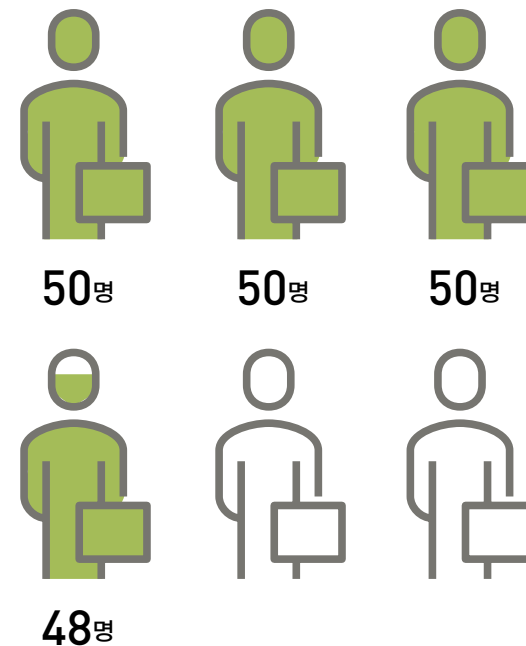
공익활동 현금 환산액

3,181,554,16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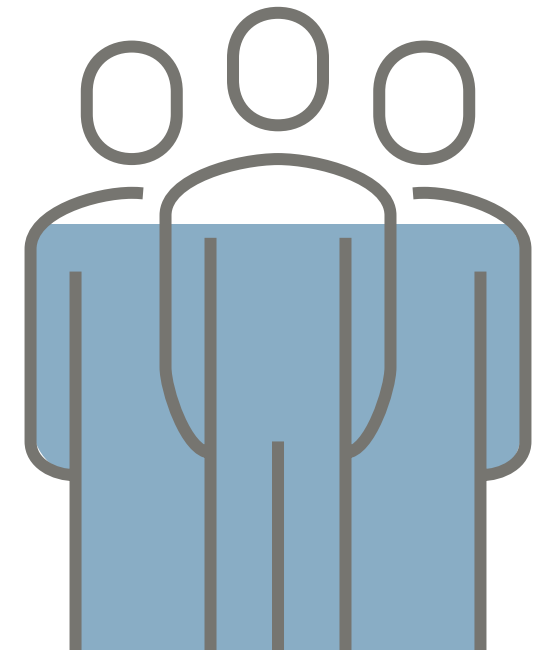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245명 중 198명




공익활동 참여 비율

약 80%



협력기관 및 단체 명단

| 단체명 | |
|---|-------------------|
|  | 공익법센터 어필 |
|  | 굿네이버스 |
|  | (사)더멋진세상 |
|  | 세계자연보호기금 |
|  | 한국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밝은청소년 |
|  | 한국후견신학연구센터 |
|  | 사회복지법인성민 |
|  | Concern Worldwide |
|  | French School |
|  | 세계국제법협회 |
|  | 한국성년후견학회 |
|  | 한국사회학회 |

| 단체명 |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
|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서울시복지재단 |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  | 한국장애인재단 |
|  | 범죄피해자중앙센터 |
|  | 국방전직교육원 |
|  | 서울독일학원 |
|  | National Geographic |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  | 민사법학회 |

장애인 고용 실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공존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로를 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울촌은 201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정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모집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 왔습니다. 울촌은 법무법인으로는 최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법무법인에 적절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울촌에서는 10명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울촌의 한 가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산정방식에 따르면, 현재 울촌의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법정 의무고용률 기준을 초과합니다).





2016 Yulchon Onyul Pro Bono Report

초판

원판

언론
보도



소순무 변호사, 공익사단법인 '은율' 2대 이사장 취임

2016. 4. 27.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윤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은율'은 지난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2대 이사장으로 소순무 변호사가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은율 이사장으로서 소 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다.

소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할 법률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법제·실무연구와 기초법 이론연구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상담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협 및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 공조를 통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은율의 설립취지를 널리 전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뜻한 윤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의미의 ‘은율’은 윤촌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익단체로 기부·상담 등 활동 뿐 아니라 법조인이 전문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개발·추진 중이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연구와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아울러 은율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후원하고 공익법센터 ‘어필’과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의 공익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율 생활법률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은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40년규제 묶인 공익법인 전문가들의 진단

2016. 5. 20.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지난달 4일부터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기획 시리즈를 통해 ▲주식 기부 5% 룰 ▲기본 재산(원금) 사용 금지 ▲농지(農地) 기부 제한 ▲까다로운 법인 설립 허가주의 등 공익법인의 활동을 옥죄는 '대못 규제'들을 지적했다. 공익법인에 특정 회사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세금을 물리는 규정 때문에 재산 200억원을 모교(母校)인 아주대에 기부했다가 215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69)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사연도 이번 시리즈에 소개됐다. 마지막 순서로 이 규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조선일보 본사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소순무 법무법인 윤촌 변호사(공익법인 은율 이사장),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청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Q.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대부분이 1960~197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간 한국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거나 절세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불법·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이미 재벌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난 다음에야 만들어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만들어진 규제 때문에 대기업과 관련 없는 애꿎은 개인 기부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Q.정부뿐 아니라 공익법인들도 자체적으로 고쳐야 할 점은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여러 유대계 재단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이 같은 실패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 공익법인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게 필요하다. 결국 절박한 사람들이 먼저 우물을 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본 경험도 거의 없고, 공익법인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상태다. 공익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과 공익법인들이 협업(協業)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를 상대로 입법을 요구해야 한다.



공익법인 은율, 개도국 법제개선 연구 발표회

2016. 6. 1. 한국경제

법무법인 윤촌의 공익법인 은율이 지난 27일 윤촌 본사가 있는 서울대치동 섬유회관빌딩에서 신흥지역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법과 외국인직접투자'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기업 투자 동향 및 전망' 등 다양한 국가별 주제가 발표됐다. 모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유학 중인 신흥국 학생들이 윤촌의 지역 전문가와 교류하며 연구한 결과물이다.

윤촌신흥지역연구센터는 지난해 3월 윤촌이 서울대와 협력해 개설한 연구기관이다. 개발도상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법제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웠다. 윤촌은 이들 유학생에게 연구비도 후원하고 있다.

우창록 윤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6기)는 “신흥국 학생들이 한국의 법제·경제·산업 등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도움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 기고

2016. 6. 23. 에이블뉴스

제19대 국회에서 주요한 성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과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국회가 생색만 내는 입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까지 담보하는 방법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가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농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 내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에 상임 또는 비상임의 위원을 장애 유형별로 부족하지 않게 두고, 각 정부부서와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유사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위대하다. 스스로의 각성과 연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경험에 있다. 완전한 참여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사)온을, 사랑의 PC기증

2016. 6. 30. 뉴스토마토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우창록)과 공익 사단법인 온을(이사장 소순무)이 30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에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30여대의 전산장비를 기증했다. 기증된 전산장비는 율촌 구성원들이 사용하던 고급 사양의 PC로서 기본부품이 장착되어 있으며 포맷과 점검을 거쳤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퇴소아동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분배위원회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후 전산장비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율촌과 온을은 최근 3년 동안 데스크톱 300대, 모니터 150대, 노트북 30대 등을 정보취약계층에 기증해 왔다. 소순무 온을 이사장은 “기증하는 장비는 고급 사양으로, 기증받는 단체들이 만족하고 있다”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율촌·온을·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2016. 7. 4. 법률신문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을, 한국성년후견학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정 민법이 도입한 법인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보다 일찍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본 치다 성년후견센터 사무국장 이마이 토모노 사회복지사가 ‘일본 법인후견의 사례’를,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온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온을이 성년후견제도가 정착에 기여하겠다”며 “직접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율촌·온을,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공공후견인 운영 위해 함께 MOU 체결

2016. 9. 6. 법률신문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을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전국 15개 시도 협회와 84개 지부로 구성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단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협회를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8월에는 장애인 후견법인 자격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율촌과 온을은 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선임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실무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제 개선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세계성년후견대회 서울 유치 '값진 결실' 제4회 독일 베를린 대회를 다녀와서

2016. 10. 27. 법률신문

제4회 세계성년후견대회(4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가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 근교의 에르크너(Erkn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2012년 호주 멜버른, 2014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본 대회는 14개의 패널 주제를 1-3, 4-6, 7-9, 10-14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한 후 같은 섹션 내 패널 주제를 골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어 동시통역이 오디오폰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필자는 14개의 패널 주제 중 Need of Support and Legal Capacity,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 Appointed “Betreuer”(Court-appointed Legal Representatives), Financial Exploitation and Supervision, Local Networks, Counseling and Structures를 선택하여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본 대회의 폐막과 동시에 2018년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의 개최를 유치한 것입니다. 본 대회는 참가국들이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대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개최될 제5회 성년후견대회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협력 아래 신선언(New Declaration)이 채택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11개 대형로펌, '공익활동 네트워크' 출범

2016. 11. 10. 법률신문

국내 대형로펌들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LSR)'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공익활동 연합체를 구성했다. 공익활동을 위한 로펌 간 협력 네트워크를 체계화·시스템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 로펌과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익네트워크 출범은 지나친 상업화와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으로 추락한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1개 대형로펌이 연합해 만든 '로펌공익네트워크'는 7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그 첫번째 활동으로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펌 공익네트워크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광장,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가나다 순) 등 주요 대형로펌이 모두 참여했다. 국내 대형로펌들이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율촌·온을, '미안마 장애아동 돕기' 바자회

2016. 12. 22. 법률신문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사단법인 온을(이사장 소순무)은 21일 서울 강남구 선유센터 3층 사내카페 여울에서 '미안마 장애아동 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에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비롯해 골프채와 의류, 육아용품, 서적 등 변호사와 직원들이 기증한 300여 점의 물품이 전시·판매됐다.

소 이사장은 "올해는 상황이 어려워서인지 사회 전반적으로 나눔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가운데에도 율촌 가족들이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율촌과 온을은 지난달에도 전직원으로부터 의류, 소품 등의 방한용품을 기증 받아 '율촌·서울대 신흥지역연구센터'에서 연구중인 동남아 신흥국 유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성민온을 성년후견제 상호협력체계 강화 맞손

2017.2.22. 에이블뉴스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사단법인 온을이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권리옹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사회복지법인 성민 박백희 부이사장과 사단법인 온을 박은수 고문 외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권리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기관은 2015년 9월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지정한 법인후견 기관 4곳중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부분에서 매우 활발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활동 후원

온음의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을 위해 기부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부해주신 금액은 온음의 활동 및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 정기 회원 기부자

2016 총 정기 기부 및 수익금

197 명

55,430,000 원

2016 특별기부자

2016 총 특별기부액

138 명

1,127,055,020 원

울촌에서 11억원(소순무 이사장 1억원 포함)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회원

205 명

강석훈 강성식 강수구 강연재 강희철 곽희경 권용환 길지연 김건웅 김결 김경연 김규식 김규현 김근재 김기락 김기영 김남호 김
능환 김민아1 김범준 김선경 김선경2 김선희 김세연 김세진 김수열 김순환 김용목 김윤태 김은정 김은정1 김은진 김재우 김정남
김정수 김정임 김정현 김준형 김철환 김철수 김태건 김태현 김한복 김현정 김혜린 김혜림 김호준 김홍석 김희경 나연순 류정모
류지혜 맹주한 목영호 문재우 문준영 박경숙 박광빈 박민영 박민주 박석준 박성범 박시중 박영윤 박은수 박주봉 박준일 박진호 박
태용 박해성 박해식 박호영 배강일 백현민 서경희 석홍동 살인수 성소영 성희연 소순무 손은정 송상우 송영은 송인보 송인태 송인선
성택 안수정 안응필 안재호 양산미 양원봉 양재준 엄효정 엄승열 엄용표 예영란 오세진 오영진 우재형 우진형 우창록 유문숙 유
우림 유홍수 윤덕근 윤상범 윤세리 윤소연 윤용석 윤용섭 윤창욱 윤초롱 윤현우 윤호근 윤홍근 윤희웅 이강민 이경근 이경무 이경
준 이명재 이미래 이민영 이석준 이선애 이수연 이수재 이수정 이승민 이영란 이영미 이예진 이영희 이재리 이재욱 이재원 이재훈
이정우 이정현 이형욱 이호진 이홍배 이화석 이화준 이희중 임경아 임동성 임수영 임재연 장가욱 장영기 전영준 전정옥 정갑진 정
동수 정성무 정우석 정문상 정원정 정준우 정태학 정현서 조상욱 조성진 조윤지 조윤희 조희정 주동진 주순식 주우현 차태진 채경수
천성현 천숙진 최민석 최선영 최수연 최승동 최만 최윤아 최인선 최장석 최재혁 최정열 최정지 최충인 최혜선 한봉희 한수연 한승
혁 한재왕 한진희 한현숙 함주혜 허범 허우영 허진용 현은숙 황규상 황문환 황인경 황정훈 황형준 황호빈 Harayama, Michitaka